

Ranganathan의 文獻分類에 관한 規範的 原則

— 특히 분류의 3단계와 분류규준을 중심으로 —

오 동 근*

<목 차>

- | | |
|-----------------------------------|---------------------------------|
| I. 緒 論 | 3. 記號段階 |
| II. Ranganathan의 문헌분류에
관한 기초이론 | 4. 文獻分類의 3段階의 脱明用
모델 |
| 1. 規範的 原則의 水準 | IV. Ranganathan의 分類規準에
관한 分析 |
| 2. Ranganathan의 基本法則 | 1. 아이디어段階의 分類規準 |
| 3. 圖書館學의 法則 | 2. 言語段階의 規準 |
| III. 文獻分類의 3段階에 관한
分析 | 3. 記號段階의 規準 |
| 1. 아이디어 段階 | V. 結 論 |
| 2. 言語段階 | 參考文獻 |

I. 緒 論

문헌분류는 정보자료나 문헌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자료조직방법이다. 문헌분류는 해당자료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주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분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동시에 문헌분류에서는 서가배열이라는 측면에서, 정보나 주제 이외에도, 자료의 외적 형식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문의 분류와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문헌분류는 학문의 분류와는 다른 특유의 이론체계를 필요로 하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헌분류이론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인도의 도서관학자 Ranganathan을 들 수 있다. 그는 문헌분류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한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을 위시한 많은 연구성과를.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소위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인 Colon Classification에 적용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성과는 문헌분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의 분류표에 적용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통합시켰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Ranganathan이 제시하고 있는 이론들을 문헌분류와 관련하여 재해석하고, 그의 문헌분류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적 체계와 3단계 분류이론을 분석하고, 아울러 분류표의 작성과 일반적 구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류기준(canon)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Ranganathan의 분류이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도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경우는 Colon Classification이나 조기성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이를 다룬 논문들이 발표되어 있다.”그러나 이를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Ranganathan의 규범적 원칙 가운데 기본법칙과 분류기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配列상의 순서와 분류작업에 관련되는 제원칙과 공준(postulate)에 대한 검토는 차후로 미루고자 한다.

-
- 1) (가) 노정순, 한국십진분류법과 콜론분류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79.; (나) 이은철, 콜론분류법: 발전 및 CC의 관점에서 본 KDC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국회도서관보 제20권 제1호, pp.53-62. (다) 남태우,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 연구, 도서관학 제22집, pp.179-217. (라) 오동근, Ranganathan의 3단계 분류이론, 도서관학연구지 제14호, pp.17-29. (마) 박종배, 랑가나탄의 조기성이론에 의한 한국십진분류법과 일본십진분류법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1989.

II. Ranganathan의 文獻分類에 관한 基礎理論

Ranganathan은 과학은 특정의 주제에 의해서 보다는 체계적인 탐구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도서관학이 좀 더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자신의 분류사상을 도서관학에 관한 이론적 개념과 통합하여 종합화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념들은 그의 규범적 원칙(normative principle)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이 규범적 원칙의 개략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規範的 原則의 水準

Ranganathan의 규범적 원칙은 도서관학의 학문적 체계를 세우기 위해 그가 연역적 추리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규범적 원칙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자연과학분야의 '가설'(hypothesis)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 자연과학분야의 가설의 한 예라면, '국가의 주권은 모든 성인 시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이 사회과학분야의 규범적 원칙의 한 예라 할 수 있다.²⁾ 즉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실험이나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가설을 입증하게 된다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연역적 추리에 의해 제시된 규범적 원칙들을 경험을 통해 보완해 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anganathan은 도서관학, 나아가 문헌분류에도 이와 같은 규범적 원칙을 세움으로써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규범적 원칙에 대한 이해는 그의 분류원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원칙들은 분류표의 근거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정분류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도움을 주고, 서로 다른 분류표의 비교에도 매우 유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바탕에서 특정의 번호를 해석할 수 있고, 일상의 분류작업에

2) S.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7, p.551.

있어서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헌분류분야의 규범적 원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조기성의 원칙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Ranganathan 이전에도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상당수가 설정되어 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⁴⁾

Ranganathan은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온 규범적 원칙들을 그 수준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어 계층적으로 그룹화하여 체계화하고, 아울러 각 단계별로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용어들은 Ranganathan의 문헌분류이론에서는 특별한 의미로 사용된다. 즉 ‘기본법칙’은 기본적인 사고과정의 수준에서 사용되며, ‘기초법칙’은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의 수준에서 적용되고, ‘분류규준’은 분류와 편목, 장서구성 등과 같은 도서관학이라는 학문의 제1단계 분과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며, ‘원칙’은 配列과 파셋배열에 있어서 유용한 순서와 같은 도서관학의 제2단계 분과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따라서 이 용어들을 문헌분류에 적용해 보면, ‘기본법칙’, ‘도서관학의 법칙’, ‘분류규준’, ‘配列의 원칙’, ‘파셋배열의 원칙’과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1과 같다.⁵⁾

〈표 1〉 Ranganathan의 규범적 원칙의 계층구조

수	준	규범적 원칙의 명칭
1.	기본적 사고과정	기본법칙 (Basic Laws)
2.	도서관학	기초법칙 (Fundamental laws)
3.	분류	規準 (Canons)
4.	配列의 유용한 순서	원칙 (Principles)
5.	분류작업	公準 (Postulates) 및 파셋배열원칙

- 3) Krishan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p. 86.
- 4) Ranganathan 이전의 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이나 일반이론에 대해서는, 특히 R.S. Parkhi, *Library Classification: Evolution of a Dynamic Theory*,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72, pp.52-101. 참조.
- 5) Ranganathan, *op. cit.*, p.113.

2. Ranganathan의 基本法則

Ranganathan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법칙(basic laws)은 일반적인 사고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도서관학의 법칙과 함께 도서관학의 모든 분야의 작업에 도움이 된다. 문헌분류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도서관학의 법칙이나 분류규준에 의해 마찬가지로 타당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상충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에만 사용된다.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의 초판(1937)에는 원래 簡素性의 법칙(Law of parsimony)만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제3판(1967)에서 해석의 법칙과 공평성의 법칙, 균형의 법칙, 지역적 변형의 법칙, 滲透性의 법칙과 같은 다섯 개 법칙이 추가되었다.

우선 해석의 법칙(Laws of interpretation)은 문헌분류의 규칙과 원칙, 규준들은 법률적인 저작과 같은 것으로서, 각 부분은 법조문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⁶⁾ 따라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석의 법칙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Ranganathan은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면 규칙과 원칙, 규준들을 경험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석의 법칙을 적용하여 분류표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분류표의 단점을 상당부분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공평성의 법칙(Law of impartiality)은 어떤 주제의 두 파셋 가운데 첫번째 파셋을 정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의 이용자 요구를 선택할 경우와 같이,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는 이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주제에서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격의 원칙에 따라 파셋의 배열순서를 결정하게 된다면, 공평성의 법칙은 충족되는 것이다. DDC 제20판의 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둘 이상의 주제

6) *Ibid.*, p.123.

나 학문분야의 결정에 관한 지침은 이와 같은 예에 속하는 것이다.⁷⁾ 또한 혼합기호법을 사용하는 Colon Classification에서 '9'를 무의미기호(empty digit)로 사용함에 따라 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Z'와 'z'도 마찬가지로 무의미기호로 사용하게 되는 것도 공평성의 법칙을 적용한 예가 된다.⁸⁾

균형의 법칙(Law of symmetry)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실체나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중시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도 그에 상응하는만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Colon Classification의 경우 앞서 살펴본 무의미기호 '9'와 'Z', 'z'는 配列에서 독립개념(isolate)을 맨뒤에 추가하기(extrapolation) 위한 기호로서 채택되었다. 그런데 균형의 법칙에 비추어, 독립개념을 중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무의미화기호(emptying digit)가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⁹⁾

간소성의 법칙(Law of parsimony)은 특정현상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가능한 대안이 존재할 경우에는, 인력이나 자원, 자금, 시간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분류에서 분류기호를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은 이 법칙에 적합하다. 특히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는 모든 주제를 분류표에 열거하는 열거식 분류표와는 달리, 기본주제만을 분류표에 열거하고 공통주분표(common isolate)나 특수주분표(special isolate)의 기호와 이를 합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분류표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칙을 충족시켜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Ranganathan은 이 법칙의 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도서관학의 법칙이나 분류규준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적 변형의 법칙(Law of local variation)은 모든 학문이나 기법에서는 이용

7)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New York, Forest Press, 1989, Vol.1. pp.xxxi-xxxiii.

8) Ranganathan, *op. cit.*, p.125.

9) Kumar, *op. cit.*, p.91.

자들이 순전히 지역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결과에 대한 別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분류표에서는 이와 같은 지역적 변형의 법칙을 준수하고 있는데, DDC에서는 소위 지역적인 중점(local emphasis)을 두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의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DDC 20판의 경우는 200 종교와 400 언어, 800 문학의 임의규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문헌분류에서 널리 사용되는 별칭번호(collection number)도 특수집단의 요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법칙에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滲透性의 법칙(Law of osmosis)은 재분류에 관련된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편목규칙이나 분류표의 변경이 필수적일 때는 특정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1) 새로 입수되는 모든 자료는 새로운 편목규칙과 분류표에 따라 편목하고 분류한다; (2) 많이 이용되는 과거의 장서들은 필요한 경우 추가의 임시직원을 고용하여 재편목하고 재분류한다; (3) 새로 입수된 자료와 재정리된 자료는 新藏書에 보관하고, 마찬가지로 목록카드도 신장서에 보관한다; (4) 과거의 장서 가운데 나머지는 舊藏書로 보관하고, 목록카드도 구장서로 보관한다; (5) 두 개의 장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고사서가 독자를 안내해야 한다; (6) 구장서에서 독자가 대출해간 책은 반납시에 이를 재편목하고 재분류하여 신장서에 포함시키고, 목록카드도 동일하게 처리한다.¹⁰⁾ 재분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복잡한 작업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거의 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삼투성의 법칙에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많은 추가의 작업량이 요구되겠지만, 점차 그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은 비용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간소성의 법칙에도 적합한 것이다.

10) Ranganathan, *op. cit.*, p.136.

3. 圖書館學의 法則

Ranganathan이 제시하고 있는 규범적 원칙의 제2수준은 도서관학의 법칙이다. 이 법칙들은 그의 첫번째 저작인 Five Laws of Library Science을 통하여 1931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는데, 이 책은 도서관학의 목적에 관한 그의 주요 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 다섯 가지 법칙의 정신은 이후에 발표된 그의 거의 모든 저작에 스며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문헌분류에서의 시각에서 이를 재분석해 보고자 한다.

도서관학의 법칙은 도서관학과 도서관서비스, 도서관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적 원칙으로서,¹¹⁾ 그 자체는 간단한 설명문에 불과하지만, 도서에 대한 접근이나 서가상의 분류순배열, 도서관의 홍보, 상호협력과 같은 도서관학의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것이다.¹²⁾ 따라서 문헌분류의 기준과 원칙들은 모두가 도서관학의 법칙과 관련을 갖게 되며, 이들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학의 법칙에 의존하게 된다.

제1법칙은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Books are for use)이라는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책’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문헌’ 또는 ‘정보자료’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용’은 ‘보존’에 대응하는 말이다. 즉 도서관의 모든 자료는 단지 보존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헌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문헌분류는 ‘適者에게 適書’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분류에서는 이용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순서(helpful order)로 문헌이나 그

11) Ibid., p.115.

12) Bernard I. Palmer. Dr Ranganathan and His Impact on World Librarianship. *Herald of Library Science*, Vol. 12, No. 2-3. (1973), p. 219.

에 대한 기록을 배열하기 위해 체계적인 순서(systematic order)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헌분류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제에 의한 배열은 이 법칙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2법칙은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Books are for all) 또는 “모든 독자에게 책을”(Every reader his/her book)이다. 이 법칙은 이용자에게 중점을 둔 것으로서, 책의 내용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이용이 소수의 특권층에만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칙은 이용자들을 파악하고 연구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헌분류의 측면에서 보면, 문헌의 분류도 특정이용자집단에게만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헌의 주제 자체를 그 상호관련도에 따라 배열함으로써,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관련주제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¹³⁾ 앞서 제시한 주제에 의한 배열은 아마도 이 법칙을 만족시켜줄 것이다

제3법칙은 “모든 책을 독자에게”(Every book its reader)이다. 이 법칙은 책 자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주로 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에 관계가 있다.¹⁴⁾ 모든 책은 그에 적합한 이용자를 갖게 될 것이므로, 문헌분류에서는 적어도 어떤 책을 원하는 이용자가 그 책을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상호관련도에 따른 배열은 이 법칙도 아울러 만족시켜주게 된다.

제4법칙은 “독자의 시간을 절약하라”(Save the time of the reader)이다. 이 법칙은 효율적인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데,¹⁵⁾ 사서가 정보의 유통을 촉진시키기

13) Pro. p.120.

14) G.O. Matthews,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School of Library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0. (Doctoral Dissertation), pp.36-37.

15) Eugene Garfield, Father of Library Science in India, *Herald of Library Science*, Vol. 24, No.3. (1985), p.153.

위하여 스스로 이용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색인과 서지작성, 신속한 대출시스템이 이용자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문헌분류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의한 배열을 통해 이를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경우 상당수의 도서관에서는 연속간행물실의 자료는 주제에 의한 분류보다는 서명의 알파벳순에 의해 배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대학논문집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나, 연속간행물실을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합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개가제로서 이용자가 직접 서고에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령 문헌정보학에 관련된 논문기사들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색인 등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잡지를 얻기 위해 연속간행물실을 온통 다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제에 의한 배열의 경우는 한 곳에서 해당주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제에 의한 배열은 이 법칙을 만족시켜 주게 된다.

제5법칙은 “도서관은 성장하는 조직체”(Library is a growing organism)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자료나 직원, 이용자 등의 모든 측면에서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전제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문헌분류도 도서관의 성장과 변화에 관계없이 자료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위 ‘상관적 배가법’(relative location)은 이러한 문헌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서가배열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도서관학의 법칙들은 Ranganathan의 연역적 사고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때로는 지나치게 당연한 사실에 바탕을 둔 진부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¹⁶⁾ 그러나 이 법칙들은 도서관학에 대한 그의 기본적 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의 문헌분류이론도 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16) 최성진, 도서관학통론, 서울, 아세이문화사, 1987, p. 298.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법칙을 바탕으로 하는 문헌분류의 기준(canon)을 살펴보기에 앞서, Ranganathan의 문헌분류의 핵심적 이론의 주요부분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소위 문헌분류의 3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文獻分類의 3段階에 관한 分析¹⁷⁾

Ranganathan은 자신의 분류이론을 아이디어단계(idea plane)와 언어단계(verbal plane), 기호단계(notational plane)의 세 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소위 분석적 합성식 분류(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은 이러한 3단계의 분류작업을 통해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기호로서 합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의 분류이론은 이러한 3단계의 구분을 바탕으로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에 상세하게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Colon Classification에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¹⁸⁾ 분류의 3단계는 그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분류기준들도 이와 같은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분할통치’(divide and rule)의 방법¹⁹⁾으로 제시된 이러한 구분은 역동적 문헌분류이론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대도약²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anganathan 자신도 지적하고 있듯이, 많은

17) 이 장은 저자가 1989년에 시험적으로 발표한 Ranganathan의 3단계분류이론(오동근. *op. cit.*)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8) S.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revised and edited by M.A. Gopinath. 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9. p.28.

19) Ranganathan, *Prolegomena*. *op. cit.* p.328.

20) M.A. Gopinath. *The Colon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in the 1970's*. p.57.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²¹⁾.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문헌분류의 3단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아이디어段階

아이디어(idea)는 일반적으로 직관이나, 관찰, 사고, 회상, 상상, 평가, 그 밖의 지적과정 등을 통하여 얻게 되는²²⁾ 생각이나 관념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Ranganathan은 지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총체로 정의하고,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전달되거나 개인적 연구나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아이디어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아이디어들은 인간의 기억속에 축적되게 되는데,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지적능력을 통해 기억의 일부를 통합시킴으로써 자체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창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전달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때 전달의 매체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단계의 핵심이 되는 언어인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체계화된 부분”²³⁾을 주제(subject)라 하는데, 그 범위나 깊이가 시종일관 관심의 영역내에 속해 있고 보통사람의 지적능력과 전문영역의 범위내에 속해 있을 때 하나의 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수학’과 같이 하나의 기본주제(basic subject)만으로 구성되거나, ‘1994년의 자동차산업’과 같이 하나의 기본주제와 하나 이상의 독립아이디어(isolate idea)가 결합되어 - 이 경우는 합성주제(compound subject)라 한다 - 구성된다. 여기서 독립아이디어란 ‘1994년’과 같이,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없으나 어떤

21) S.R. Ranganathan to Phyllis A. Richmond, Apr 29, 1965, Matthews, *op. cit.*, p. 38에서 재인용.

22)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 *op. cit.*, p. 29.

23) *Loc. cit.*

주제의 한 구성요소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복합아이디어를 말한다. 한편 '사회과학자를 위한 통계학'과 같이 둘 이상의 주제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주제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복합주제 (complex subject)라 한다.

아이디어단계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른 단계와는 독립적으로 다루는 단계이다. 문헌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제영역을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제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디어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헌분류의 기본적인 작업은 아이디어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아이디어단계에서는 각 주제를 파셋 (facet)이라는 기본주제나 독립아이디어로 분석하여 그 일반적인 구조를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와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된 파셋들이 기호단계에서 다시 합성됨은 물론이다.²⁴⁾ 따라서 아이디어단계의 작업이 세 단계 가운데 최고의 것이 되며²⁵⁾ 다른 단계들은 그 발견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이디어단계의 작업은 겉으로는 드러날 수가 없으므로, 분류표에서는 단어나 분류기호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때로는 언어단계나 기호단계의 제약을 받기도 한다. 즉 동일한 아이디어를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아이디어가 왜곡되기도 하고, 아이디어단계의 발견결과를 기호단계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아이디어단계의 발견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언어단계에서의 용어의 표준화와 기호단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함께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言語段階

언어의 사용은 인간이 갖는 고유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은 이 언어를

24) 분석적 합성식 분류의 다른 이름인 파셋식분류 (faceted classification)는 이러한 파셋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조적 측면에서 붙여진 것이다.

25) Ranganathan, *Prolegomena*, op. cit., p. 335.

통해 그들이 창조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재창출해왔다. 음성언어(spoken language)가 갖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문자라는 기록언어(written language)를 통해 인간은 전달의 폭을 더욱 확대시켰다.

언어단계는 아이디어를 이와 같은 자연어나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즉 아이디어단계에서 찾아낸 아이디어나 주제에 대해 이름을 붙이는 단계인 것이다.²⁶⁾ 그러나 자연어는 당연히 아이디어보다 개발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동음이의어(homonym)나 동의어(synonym)가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이나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용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은 자체의 전문용어(jargon)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언어간의 장벽을 없애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술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학문분야에서 설정된 전문용어는 그 분야의 '대상언어'(object language)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연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대상언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메타언어'(metalanguage)로 표준화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표준화기구(ISO)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Ranganathan은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학, 나아가 문헌분류에 있어서도 자체의 대상언어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신의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에서 제시한 용어들이 영어를 메타언어로 하는 문헌분류분야의 대상언어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²⁷⁾

한편 이상과 같은 표준화의 미비와 언어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언어단계의 작업은 다른 단계의 작업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26) M. A. Gopinath, The Colon Classification, in *Classification in the 1970's*, p. 57.

27) Ranganathan, *op. cit.*, p. 331.

용어를 표현하는 ‘정확한’ 용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어려움이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분류표에서는 용어의 다음에 주석을 달거나, 판마다 유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언어단계에서는 아이디어단계에서 형성된 아이디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신의 표준화된 용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3. 記號段階

기호단계는 아이디어나 개념, 또는 이를 나타내는 단어를 기호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즉 아이디어단계와 언어단계의 작업결과를 기호로 변환시키는 단계인 것이다. 이 때는 분류상의 배열순서를 나타내기 위해 서수(ordinal number)로 된 인공언어(artificial language)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분류언어(classificatory language)라 한다. 서수는 숫자를 세거나 양을 나타내는 기수(cardinal number)와는 달리, 어떤 순서에서 어떤 실체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이다. 따라서 분류언어는 어떤 주제나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문헌을 배열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류학자의 통제를 받게 되는 통제어(controlled language)이다. 그러므로 기호단계에서는 자연어가 가질 수 있는 동음이의어나 동의어와 같은 불명확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하여 기호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개념, 또는 언어를 나타내주는 일단의 서수와 이를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해야 한다.

분류언어는 문헌분류표의 개발에 있어서는 대상언어가 되게 된다.²⁸⁾ 아울러 분류의 대상이 되는 주제영역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점에서, 분류언어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즉 기호단계는 아이디어단계의 발견결과를 구현하는 단계이

28) *Ibid.*, p.332.

므로, 기호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지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호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문헌분류표에서는 오히려 기호의 한계나 제약으로 인하여, 아이디어의 발전이나 전개가 저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Ranganathan이 고안한 여러 가지 기호법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앞서 제시한 무의미기호(empty digit)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고 순서값만 갖는 기호’²⁹⁾로서, 배열(array)의 맨뒤에 새로운 주제나 독립아이디어가 추가될 경우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호이다. 또한 무의미화기호(emptying digit)는 그 기호와 결합되는 기호의 의미를 없애줌으로써, 배열의 중간에 새로운 주제나 독립아이디어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호들은 주종관계에 있는 아이디어단계와 기호단계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호단계에서는 아이디어단계에서 분석된 주제나 아이디어의 구조나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호화되어 합성된 형태로 완성되어 하나의 분류기호로 나타나게 된다. 이로써 분석적 합성식 분류의 3단계도 완성되는 것이다.

4. 文獻分類의 3段階의 說明用 모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적 합성식 분류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단계에서 주제를 파셋이라는 기본요소로 분석하고, 언어단계에서는 이를 표준화된 용어로 변형시키고, 기호단계에서는 이를 기호로 변환시켜 합성하게 된다. 그러나 Ranganathan 자신도 분류학자로서의 연구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후인 1944년에야 이 3단계의 중요성과 분리가능성을 파악하고, 1952년에 가서야 이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앞서도 제시한 것처럼, 그 자신도 이를 설명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실토했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화학식의

예를 원용하여 이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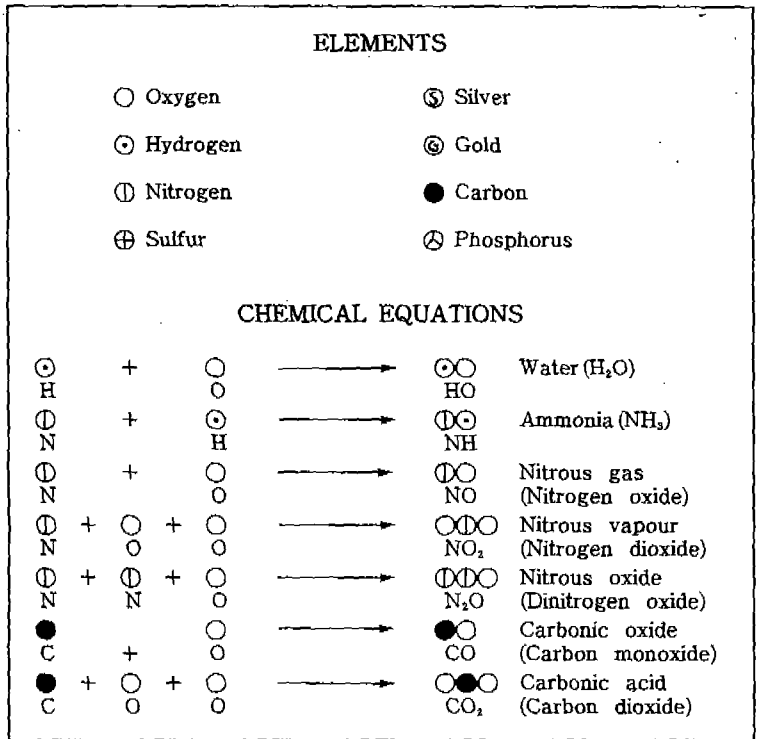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화학의 역사는 물질을 나누는 ‘분석’과 물질을 합하는 ‘합성’의 두 분야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사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arche)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고대의 기술자들이나 연금술사들은 합성을 통하여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냈다. 아울러 화학자들은 물질을 그 구성성분이 일정한가의 여부에 따라 균일물과 불균일혼합물로 나누고, 균일물은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균일혼합물과 순물질로 나눈다. 순물질은 다시 화학적 방법으로 더 작은 물질로 분해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화합물과 원소로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작은 물질로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이며, 화합물은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화합물은 두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성분 화합물과, 그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세 성분 화합물, 네 성분 화합물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Ranganathan의 주제에 대한 분석과 대비시켜 보면, 원소는 기본주제, 화합물은 합성주제, 혼합물은 복합주제와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본주제가 되는 원소는 파셋과 포커스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²⁹⁾

한편 화학에서는 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하여 화합물을 만들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화학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문헌분류의 3단계와 아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은 원자의 존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John Dalton이 제시한 원소기호와 화학반응식의 예이다.³¹⁾

29) *Ibid.*, p. 238.

30) 물론 Ranganathan이 말하는 파셋과 포커스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 즉 하나의 파셋에는 여러 개의 포커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DDC 문학구분의 경우 문학형식이라는 파셋 - 문학의 세번째 파셋 - 은 시, 드라마, 소설 등의 여러 포커스로 구성된다. 그러나 화학에서의 예에서는 이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31) David W. Oxtoby 등저: 강삼우 등역, 일반화학, 수정판, 서울, 청문각, 1992, p. 13.



〈그림 1〉 Dalton의 원소기호와 화학반응식

* 그림 가운데 일부는 오늘날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괄호안의 예는 오늘날의 수정된 식과 명칭이다.

Dalton의 식에서도 대략 알 수 있듯이, 예컨대 물을 화학적으로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고 그 결합순서가 정해지는 단계까지의 과정은 문헌분류의 아이디어단계와 유사하다. 또한 그 분석된 원소에 대해 각각 수소와 산소, 또는 Hydrogen과 Oxygen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단계는 언어단계와 일치한다. 화학에서도 원소는 물론 그 화합물에 대한 명명법의 표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헌분류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아울러 각 원소를 표기하기 위한 기호로서 각각 H와 O를

사용하고 이를 결합시켜 H₂O로 나타내는 과정은 문헌분류의 기호단계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헌분류의 3단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서 화학식의 모델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화학식에서는 원소기호를 사용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물론 원자의 수, 원자의 결합양식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원소의 순서와, 원소 및 그 화합물의 명명법, 기호부여방법, 화학식의 표현방법 등이 명확한 원칙과 화학에서 밝혀진 법칙에 따라 규정되고 준수되는 것이다. Ranganathan의 규범적 원칙은 문헌분류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세우기 위해 설정된 연역적 사고에 의한 원칙 - 화학에서의 실험적, 경험적 법과 대비되는 - 이다. 아울러 그는 분류에 관한 규범적 원칙, 즉 분류규준을 3단계의 작업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와 같은 분류규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V. Ranganathan의 分類規準에 관한 分析

Ranganathan의 분류규준(canon)은 도서관학의 법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서, 주로 문헌분류표의 설계에만 관련되는 규범들이다. 그는 문헌분류의 3단계와 도서분류로 구분하여 총 37개의 분류규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³²⁾

1. 아이디어段階의 分類規準

아이디어단계에서는 다섯 개의 본질적인 개념, 즉 분류특성, 연속되는 분류특성,

32) 이 장의 분석은 Ranganathan (*op. cit.*)와 Kumar (*op. cit.*), Parkhi (*op. cit.*), Sachdeva, M.S. *Colon Classification*. New Delhi, Sterling Publishers PVT LTD, 1975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자 한다.

配列(array), 연쇄구조(chain), 파생적 순서 등에 대하여 총 15개의 분류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2〉 아이디어단계의 분류규준

분류 특성	연속되는 특	배 열	연쇄 구조	파생적 순서
구 분 적 합 성 확인가능성 영 속 성	공존 연속의 적합성 연속의 일관성	망라성 배타성 유용한 순서 순서의 일관성	외연 감소 조절	종 속 류 등 위 류

A. 分類特性을 위한 분류규준

분류특성이란 분류의 3요소 가운데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분류체가 동일하더라도 분류특성이 달라지면 분류지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분류규준은 네 가지가 있다.

(1) 구분의 규준(canon of differentiation) : 어떤 영역, 즉 피분류체를 분류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는 분류특성은 적어도 두 개의 유, 즉 둘 이상의 분류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즉 둘 이상으로 피분류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라는 영역을 '성별'이라는 특성에 의해 나누면 '남성', '여성'의 분류지가 생긴다. 그러나 '생명력'이라는 분류특성은 '인간'이라는 영역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분류특성으로서는 적합 못하다.

(2) 적합성의 규준(canon of relevance) : 각각의 분류특성은 분류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능력별로 '아동'을 분류할 때는 '지능'이 적합한 분류특성이 되지만, 체육시간의 경기를 위해 분류할 때는 '체력'이 적합한 분류특성이 되는 것이다.

(3) 확인가능성의 규준(canon of ascertainability) : 각각의 분류특성은 분명

하고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적합성이 있는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예컨대 미래의 사망일과 같은 확인불능의 특성보다는, 출생일과 같은 다른 확인가능한 특성만이 분류특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영속성의 기준(canon of permanence) : 각각의 분류특성의 분류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마치 카멜레온을 구분하는 데 '색'을 분류특성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변화가능성이 있는 특성은 분류특성으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준과 적합성의 기준이 서로 상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국가'라는 분류특성이 아주 적합한 특성이 되지만, 구소련의 예에서 보듯이 이 특성은 항상 가변적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

B. 연속되는 分類特性을 위한 기준

이 기준들은 분류특성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 종류가 제시되고 있다.

(5) 공존의 기준(canon of concomitance) : 두 개 이상의 분류특성을 분류대상에 연속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두 개의 특성도 서로 중복되는 배열(array)을 만들어내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소년'이라는 대상에 '신장'과 '체중'이라는 특성은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연령'과 '출생일'이라는 특성은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이들은 동일한 배열을 만들어 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6) 연속의 적합성의 기준(canon of relevant succession) :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의 순서는 분류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DDC의 문학에서 채택하고 있는 '학문-언어-형식-시대'의 파셋배열공식에서 나타나는 언어와, 문학형식, 시대구분의 분류특성의 순서는 분류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7) 연속의 일관성의 기준(canon of consistent succession) : 연속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의 순서는 분류의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C. 配列을 위한 기준

배열(array)은 어떤 분류대상에 특정의 분류특성을 적용하였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분류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구조로, 동위분류체라고 번역한 예도 있다.³³⁾

예를 들면 ‘사람’이란 영역을 ‘피부색’이라는 분류특성을 적용하여 구분하면 ‘흑인’, ‘백인’, ‘흑인’의 분지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분류지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구조가 바로 배열이 된다. 이와 같은 배열을 위한 분류기준으로는 네 종류가 제시되고 있다.

(8) 망라성의 기준(canon of exhaustiveness) : 어떤 배열에 속해 있는 유들은 각각의 공통적인 인접영역을 모두 망라해야 한다. 즉 어떤 분류특성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구분지를 망라적으로 빠짐없이 열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KDC에서 ‘기타’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망라성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9) 배타성의 기준(canon of exclusiveness) : 동일한 배열에 속하는 유들은 서로 배타성을 가져야 한다. 즉 배열의 어떤 유도 서로 중복되거나 공통의 실체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어떤 분류대상에든 단하나의 분류특성만을 적용할 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문학’이라는 대상에 ‘언어’와 ‘국가’라는 두 개의 분류특성을 적용하게 된다면, 동일한 배열상에 나타나게 될 ‘영문학’과 ‘호주문학’은 서로 중복되게 되어,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33) 노경순, *op. cit.*, p. 97.

(10) 유용한 순서의 기준(canon of helpful sequence) : 동일한 배열에 속하는 유들의 순서는 분류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유용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다시 어떤 순서가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Ranganathan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용한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규범들을 '원칙'(principle)으로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³⁴⁾

(11) 순서의 일관성의 기준(canon of consistence sequence) : 유사한 유들이 서로 다른 배열에 나타날 경우에는 언제나, 그것이 더욱 중요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한, 대등한 순서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 주는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문헌분류표에 나타나는 조기표인 것이다. 조기표를 통하여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호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와 분류자의 정신적 노력이나 시간을 절약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D. 連鎖構造를 위한 기준

연쇄구조(chain)는 상위주제와 하위주제의 연결관계, 즉 계층구조의 연결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KDC의 예를 들면 주류 - 강 - 목 - 세목의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두 종류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12) 外延減少의 기준(canon of decreasing extension) : 어떤 연쇄구조를 첫번째 링크에서 마지막 링크로 내려가는 동안, 해당류의 외연, 즉 범위는 줄어드는 반면, 그 내포, 즉 깊이는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KDC의 문학의 경우, 문학(800)에서 한국문학(810), 한국시(811), 향가(811.1) 등으로 계층구조를 따라 내려갈수록 범위는 좁아지지만, 깊이는 늘어나는 것과 같다.

(13) 조절의 규범(canon of modulation) : 연쇄구조는 첫번째 링크와 마지막 링크 사이에 있는 각각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의 유로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34) 유용한 순서의 '원칙'은 Ranganathan, *op. cit.*, pp.181-197 참조.

들면 앞서 제시한 한국문학의 경우는 문학 - 한국문학 - 한국시 - 향가로 연결되는 계층구조의 특정단계가 생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 派生的 順序를 위한 기준

파생적 순서(filiatory sequence)는 어떤 영역을 그 유연관계에 따라 완전히 세분했을 때 나타나는 순서로서,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는 두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그림 2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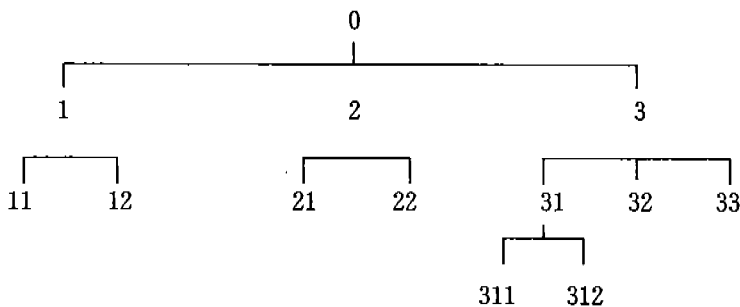


그림 2. 종속류와 등위류의 관계

(14) 종속류의 기준(canon for subordinate classes) : 그림 2의 예에서, 31, 311 등이 3의 연쇄구조의 어느 곳에서 생긴 3의 종속류라면, 유 31과 311 등은 다른 유에 의해 분리되지 않은 채 유 3의 바로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종속류 사이의 관계는 마치 가계도의 경우와 같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15) 등위류의 기준(canon for coordinate class) : 그림 2의 예에서, 유 31, 32, 33이 하나의 동일한 배열에 나타나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유들은 유 311, 312 이외의 어떤 유에 의해서도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즉 등위류의 배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끼리 인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5) Kumar, op.cit., p.121.

2. 言語段階의 規準

용어와 관련되는 언어단계에서는 네 종류의 분류규준이 제시되고 있다.

(16) 전후관계의 규준(canon of context) :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용어가 나타내는 유와 동일한 연쇄구조에 속하는 상위링크의 다른 유들에 비추어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생태 등과 같은 용어들은 여러 주제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용어가 사용된 전후관계나 상황을 잘 파악하여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17) 枚擧의 규준(canon of enumeration) :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용어가 나타내는 유를 공통의 링크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연쇄구조에 열거되어 있는 하위유에 비추어 결정해야 한다. 어떤 용어의 의미는 분류표마다 다양할 수도 있으므로, 분류표의 이용자는 각각의 유나 하위유를 참조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18) 통용성의 규준(canon of currency) : 어떤 분류표의 유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는 해당영역의 전문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분류표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KDC의 예술류에 나타나는 “도지”와 같은 예가 이 규준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19) 신중성의 규준(canon of reticence) :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비평적이어서는 안된다. 즉 어떤 의견을 나타내어서는 안된다. ‘주요’(major) 등의 표현은 이를 위반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3. 記號段階의 規準

기호단계의 분류규준은 일반규준과 특수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규준은 다시 영역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규준과, 조기성을 위한 규준, 도서분류를 위한

규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를 도표화하면 표 2와 같다.

〈표 3〉 기호단계의 분류규준

일 반	영 역 증 가	조 기 성	도서기호/별치기호
동의어 동음이의어 상관성* 계층구조* 혼합기호법* 파셋기호법* 동일범위*	배열의 외삽 배열의 내삽 연쇄구조의 외삽 연쇄구조의 내삽	알파벳순 조기성 표에 의한 조기성 체계적 조기성 동종적 조기성	도서기호 별치기호 변별성

* 쌍으로 된 규준 가운데 첫번째 규준만을 제시한 것임.

A. 一般的 規準

기호법에 관한 일반적인 규준은 동의어와 동음이의어에 관한 각각의 규준과 다섯 개의 쌍으로 된 별도의 규준으로 이루어진다.

(20) 동의어의 규준(canon of synonym) : 분류표에서 어떤 주제를 나타내는 분류기호는 특유의 것(unique)이어야 한다. 자연어의 경우는 동의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류언어인 기호는 분류학자에 의한 통제어이므로, 기호에 있어서 동의어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어떤 학문에 속하는 특정의 주제에 대해 둘 이상의 분류기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21) 동음이의어의 규준(canon of homonym) : 분류표에서 어떤 분류표에의해 표현되는 주제는 특유의 것이어야 한다. 동의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연어에서는 동음이의어의 발생가능성이 많으나, 분류표에서는 하나의 기호가 둘 이상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2) 상관성의 규준(canon of relativity) : 분류기호에서 사용하는 기호의 숫자는 그 기호가 나타내는 주제의 단계(order)와 동일해야 한다. 즉 계층구조가 세분

될수록 분류기호의 길이는 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와 쌍을 이루는 통일성의 기준(canon of uniformity)에 따르면, 단계에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 상관성을 취할 경우는 계층구조를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통일성을 취하게 되면 기계화에 잇점이 있다.³⁶⁾

(23) 계층구조의 기준(canon of hierachy) : 분류기호에는 분류기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각각의 분류특성을 나타내주는 기호가 있어야 한다. 즉 각각의 분류특성에는 별도의 기호가 사용되어야 한다. KDC 문학의 예를 들면 언어를 나타내는 기호와 문학형식을 나타내는 기호는 단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각 단계의 나머지 기호를 간격기호(gap notation)으로 처리하게 되고 각 단계마다 기호의 자리수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간소성의 법칙과 상반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편 이와 쌍을 이루는 비계층구조의 기준(canon of non-hierachy)에서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24) 혼합기호법의 기준(canon of mixed base) : 분류표의 기호법의 기수(base)는 두 종류 이상의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기수를 늘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순수기호법의 기준(canon of pure base)는 단 한 종류의 기호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기호의 단순성이라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Ranganathan은 주제의 수가 너무나도 많고, 눈이 갖는 생리현상이나 기억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혼합기호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³⁷⁾ 이 두 기준과 관련하여, 기수도 늘리면서 기호의 단순성도 유지시킬 수 있는 소위 百進分類法의 아이디어는 재음미해볼 만하다고 하겠다.³⁸⁾

(25) 꺾기호법의 기준(canon of faceted notation) : 꺾기호법은 기호의 블록이 구두점과도 유사한 지시기호(indicator digit)로 연결되고, 각 지시기호는

36) Ranganathan, *op. cit.* pp.275-276.

37) Kumar, *op. cit.* p.159.

38) 정필모, 백진분류법설계, 도서관학 제20집(1991.9), pp.35-63.

어떤 주제의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내주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multipartite) 기호법이다.³⁹⁾ 이와 쌍을 이루는 규준은 비파셋 기호법의 규준이다. 주제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분류번호의 평균적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서, 분류기호를 변별적인 특성을 갖는 의미있는 블록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⁴⁰⁾ 파셋기호법은 이와 같은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6) 동일범위의 규준(canon of co-extensiveness) : 분류기호에서는, 연속되는 분류특성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분류특성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류기호에 연속적으로 기호를 추가해야 한다. 이 규준에 따르게 되면, 해당자료에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상세한 분류기호를 부여하게 되므로, 이 규준은 소위 상세분류(close classification)에 적합하다. 이와 쌍을 이루는 하위범위의 규준(canon of under-extensiveness)은 이와는 반대로 소위 간략분류(broad classification)에 적합한 규준이라 할 수 있다.

B. 領域增加에 대비하기 위한 규준

주제영역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기호법의 규준으로는 배열과 연쇄구조에 있어서 각각 그 중간에 삽입(內插 : interpolation) 하기 위한 규준과, 맨처음이나 맨뒤에 추가(外插 : extrapolation) 하기 위한 규준의 두 종류, 도합 네 종류가 제시되고 있다. 이 규준들은 주제영역들이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준들이다.

(27) 배열상 외삽의 규준(canon of extrapolation in array) : 분류기호로 이루어지는 배열은 그 배열의 앞이나 뒤에 새로운 등위기호(coordinate number)가 추가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배열의 앞뒤에 빈칸으로 된 간격

39) Kumar, *op. cit.*, pp.130-131.

40) *Ibid.*, pp.160-161.

기호(gap device)를 두거나, 섹터화기호(sectorising digit)⁴¹⁾를 사용할 수 있다.

(28) 배열상 내삽의 기준(canon of interpolation in array) : 분류기호로 이루어지는 배열은 그 배열의 어느 위치에서든 새로운 등위기호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격기호를 두거나, 새로운 종류의 기호를 도입하거나, 무의미화기호(emptying digit)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CC에서만 사용되는 무의미화기호는 기호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리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문제는 있으나, 연속적인 두 기호 사이에 어떤 분류기호를 삽입하기 위한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²⁾ 한편 혼합기호법을 채택할 경우에는, 특정섹터에 대한 외삽이 내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9I'은 '8'과 'A' 사이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29) 연쇄구조상 외삽의 기준(canon of extrapolation in chain) : 분류기호의 연쇄구조는 맨뒤에 연속되는 링크가 추가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연쇄구조상의 추가의 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격기호와 소수기호(decimal fraction device)⁴³⁾를 사용할 수 있다.

(30) 연쇄구조상 외삽의 기준(canon of extrapolation in array) : 분류기호의 연쇄구조는 연쇄구조상의 연속적인 두 링크 사이에 새로운 링크가 삽입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를 만족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호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C. 助記性을 위한 규범

일반적으로 조기성(mnemonics)은 '기억을 돕는 성질'로 이해되는데, 분류직업

41) 섹터화기호법은 각 기호의 첫번째 기호(예를 들면 '0'이나 'A')나 마지막 기호(예를 들면 '9'나 'Z')를 무의미기호로 사용하며, 기호의 외적삽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42) Kumar, *op. cit.*, p.161.

43) 소수기호는 각각의 기호를 정수가 아닌 완전소수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소수점이 없어도 새로운 기호의 추가는 새로운 연쇄구조의 추가로 간주된다.

시 분류자의 기억을 돕고, 색인과 분류표를 참조하는 일을 감소시켜 주며, 분류표의 양을 줄여 주고, 유사주제에서 일관된 배열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⁴⁴⁾ Ranganathan은 이와 같은 조기성의 종류를 알파벳순 조기성과, 표에 의한 조기성, 체계적 조기성, 동종적 조기성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1) 알파벳순 조기성의 기준(canon of alphabetical mnemonics) : 주제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는 알파벳순 조기성은 그것이 다른 어떤 순서 못지 않게 유용하고 해당분야에 국제적인 용어법이 존재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알파벳순보다 더 유용한 다른 순서가 존재한다거나, 국제적 분류표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용어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국어의 알파벳순(예컨대 한국어의 '가나다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알파벳순 조기성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32) 표에 의한 조기성의 기준(canon of scheduled mnemonics) : 분류표에서 독립아이디어나 독립아이디어로 이루어진 배열은 어떤 주제에서 나타나든 관계 없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하나의 기호나 기호군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표에 의한 조기성의 대표적인 예는 DDC의 표준세구분을 포함한 보조표들이다. 이 기준을 따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관적 순서의 기준은 충족되게 된다. 아울러 분류표의 본표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간소성의 법칙도 충족시켜 준다.

(33) 체계적 조기성의 기준(canon of systematic mnemonics) : 분류표에서 어떤 配列의 독립아이디어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들은 유용한 순서의 원칙에 의해 해당독립아이디어들이 배열되는 순서와 대등한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이디어단계에서 얻어진 유용한 순서가 기호단계에서는 대등한 순서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체계적 조기성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순서로서는

44) 남태우,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 연구, 도서관학 22집 (1992.6), p.213.

45) Kumar, *op. cit.*, p.170.

시간의 순서, 진화의 순서, 공간의 순서, 양적 순서, 복잡성의 순서, 전통적 또는 규범적 순서, 문헌적 타당성의 순서, 알파벳순 등이 있다.⁴⁶⁾

(34) 同種의 조기성의 기준(canon of seminal mnemonics) :⁴⁷⁾ 동종적인 성격을 갖는 대등한 개념들은 어떤 주제에 나타나든 관계없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축산에서의 ‘질병’과, 의학에서의 ‘질병’, 사회학에서의 ‘사회병리학’, 생물학에서의 ‘병리학’ 등은 서로 다른 주제에서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고, 겉보기에는 무관한 것 같지만, ‘질병’이라는 동일한 기본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념들은 분류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圖書記號와 別置記號를 위한 기준

분류의 실제와 관련하여, 도서기호와 별치기호, 청구기호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분류기호 이외에도 도서기호와 별치기호 등이 추가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도서기호는 특정의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고, 별치기호는 일부의 경우에만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분류표에서는 도서기호와 별치기호에 대한 규정을 분류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Colon Classification에서는 도서기호는 물론 별치기호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키고 있다.

(35) 도서기호의 기준(canon of book number) : 동일주제를 최종류(ultimate class)로 가지고 있는 문헌들을 개별화하고 우선적인 배열을 기계화하기 위해, 문헌분류표에는 도서기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분류작업은 자료를 서가상에 배열하는 것으로 완료된다고 보면, 분류기호 이외에 도서기호가 분류표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할 것이다.

46) 박종배, *op. cit.*, pp.13-16.

47) 근본적 조기성이라는 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박종배, *op. cit.* 등).

(36) 별치기호의 기준(canon of collection number) : 문헌분류표에서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수문헌의 다양한 장서들을 개별화하기 위한 별치기호표를 제공해야 한다. 별치기호는 자료의 소재확인과 재배치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기본장서나 일시적인 장서의 경우는 불필요할 것이다.

(37) 辨別性的 기준(canon of distinctiveness) : 분류표에서 분류기호와, 도서기호, 별치기호로 이루어지는 청구기호는 서로 상당한 변별력을 가져야 한다. 즉 청구기호는 서로 중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V. 結 論

이상에서는 Ranganathan의 문헌분류이론의 근간이 되는 규범적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Ranganathan의 규범적 원칙은 그의 연역적 사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각 수준에 따라 기본법칙과 기초법칙, 분류기준, 원칙, 공준 등의 서로 다른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2. Ranganathan의 기본법칙과 도서관학의 5법칙에 대한 문헌분류 측면에서의 재해석은 분류표의 고안과 분류작업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3. 문헌분류의 세 수준, 즉 아이디어단계와 언어단계, 기호단계는 화학의 분석과 합성의 과정과 유사하며, 화학식을 통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4. Ranganathan은 분류표의 설계에 관련된 규범적 원칙으로서, 분류의 3단계에 따라 아이디어단계에 15종, 언어단계에 4종, 기호단계에 18종, 총 37종의 분류기준을 각각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상에서 살펴본 문헌분류의 3단계와 분류기준은 기본적으로 분석적 합성식 분류표 또는 파셋식 분류표의 지침아이디어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들은 대부분의 일반분류표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분류표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DDC나 KDC를 포함한 오늘날의 소위 準列舉式분류표에서는 분석적 합성식의 아이디어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류표의 개선을 위해서도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4판의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KDC의 개선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參 考 文 獻

- 노정순. 한국십진분류법과 콜론분류법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79.
- 박종배. 랑가나단의 조기성이론에 의한 한국십진분류법과 일본십진분류법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북대. 1989.
- Atherton, P. Ranganathan's Classification Ideas: An Analytico-Synthetic Discuss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9. No.4 (1965). pp.463-473.
- Kumar, Krishan. *Theory of Classification*. 2nd ed. New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1981.
- Matthews, G.O. *The Influence of Ranganathan on Faceted Classification*. School of Library Science,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1980. (Doctoral Dissertation).
- Parkhi, R.S. *Library Classification: Evolution of a Dynamic Theory*. Delhi: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1972.
- Ranganathan, S.R. *Colon Classification*. 7th ed. revised and edited by M.A. Gopinath. 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9.

Ranganathan. S.R. *Elements of Library Classification*. London, The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 1959.

Ranganathan, S.R.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 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Sachdeva, M.S. *Colon Classification*. New Delhi : Sterling Publishers PVT LTD, 1975.

Vickery, B.C. *Faceted Classification*. London : Aslib, 1960.

A Study on Ranganathan's Normative Principles of Library Classification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normative principles suggested by Ranganathan as the guiding principles for his theories, consisting of basic laws, fundamental laws, canons, principles and postulates.

His five basic laws and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are re-interpreted from the view point of library classification. And three planes of idea plane, verbal plane and notational plane, one of the core ideas in his analytico-synthetic theory of library classification, are analyzed.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demonstration model for this three planes using the ideas from chemistry and chemical equation. In the last part, it analyzes the canons for library classification of three planes.

These normative principles are basically guiding principles for so-called analytico-synthetic or faceted classification. But they can be applied to most of modern classification schemes, especially to semi-enumerative schemes including DDC, KDC, etc. so that they can improve the schemes. From this regard, these principles can also be helpful to the KDC, on the verge of the revision of its fourth edi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